

오피니언

光日春秋

전 흥택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과잉이...

신뢰를 손상시켜 극단적인 경우 사회적 아노미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사회...

사회적 자본 확충 서둘러야

필요한 사회적 기반이다.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가 원활하게 거래되기 위해서는 관...

그러나 제도적인 신뢰증진 장치만으로는 생산적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네트워크와 상호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적 자본은 정치, 경제 등 한 사회의 전반적...

공식적 제도에 대한 신뢰로 구분된다. 비공식적 관계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한국인은 혈연, 지연 등 연고자에 대한 신뢰는 높은 반면 연고자가 없는 이웃, 낯선 사람...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사회단체 집회 '5·18 정신' 훼손 말아야

5·18민주화운동 28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국립 5·18민주묘지에 전국 각지의 참배객들이 줄을 잇는 등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예정이다. 공권력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폭력·불법 시위는 절대 안 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Kisti 과학향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창규



자동차로 충북 청원군 경북 삼주 간 고속도로 하행 길을 달다 보면 나지 막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고, 이 소리가 나팔 모양의 관을 통해 확대된다. 전자 기술이 발달하면서 나팔관 대신 마이크가 소리를 모으는 장치로 쓰였고...

바늘 끝으로 느껴봐~

을 둘러싼 공기 또한 진동시키며, 이 진동이 파의 형태로 퍼져 나간다. 유리컵에 물을 담고 컵을 두드려보면 물결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달된 파가 우리 귀에 도달하면 감각기관이 이를 소리로 인식한다.

진동과 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를 통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파형으로 바꾸어 준다. 일상생활에서도 촉음기의 기본 원리를 이용해 간단히 재현해 볼 수 있다.

기고

이희성



제주 수학여행 버스 전복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학생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한다.

합한 차량으로 배차하고 경사가 심하고 위험한 곳에는 새차를 배차해야 한다.

수학여행 대형교통사고 막으려면

술고사는 출발 전에 학생들의 안전벨트 착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동 중 가무행위는 절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대형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대해서 도로 보수와 과속 방지 시설 설치, 사고 예방용 단속카메라 설치, 지역 교통행 정 공무원 배치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

'줄속협상' 책임 떠넘기는 한심한 정부

미국산 쇠고기수입 협상과 관련, 제협상론이 비등한 가운데 협상 결과를 놓고 정부 부처간 책임 공방이 한창이다.

않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점이다. 총력을 모아 협상을 해도 조강대굴 미국을 당해내지 못할 판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할 말이 없다.

無等鼓

경기가 어려울수록 공무원에 대한 선 호도는 높아지기 마련이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되는데다 급여 및 복지에서도 민간기업 수준에 근접하면서 직장을 구하려는 젊은이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공시족(公試族)



공무원시험에 취업 준비생들이 구름처럼 몰리면서 신조어들도 넘쳐나고 있다.

공시족(公試族)은 국어사전에도 올랐다. 공시족은 7, 9급 공무원시험이 사시나 행시처럼 어렵다는 뜻에서 이름 붙여졌다.

학기중 휴학 때 등록금 반환 이월 선택권 줘야

대학 재학생이다. 개인사정으로 잠시 휴학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미 낸 등록금이 걱정돼 고민하던 중 휴학 경험이 있는 친구에게 물었더니 등록금이 계속 오를테니 돌려받지 말고 복학할 때 따로 내지 않도록 이월하라고 알려줬다.

휴학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자수익을 위해 학교에 유리한 방식을 택한 것이다.

회사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러 가면 메뉴를 삼계탕을 먹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직원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지금 AI(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난리인데 무슨 닭고기나 고 되물었다.

받는 눈치였다. 결국 삼계탕을 먹었다. 필자는 식사를 하면서 먹는 것만큼은 까다롭기 짝이 없는 미군조차도 AI가 생겼을 때 닭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浩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29 문물취급부 2200-626
정 치 부 2200-616 여론대변부 2200-628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체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5,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